

코로나19와 북중무역: 영향과 전망

정형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hgjeong@kiep.go.kr

I.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

북한경제가 심상치 않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로 들리지만 2021년도의 북한경제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위기 속의 위기라 상황의 심각성을 독자들은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된다면 겨우 연명하고 있는 북한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북한경제의 실상은 이렇다. 2016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실행된 이후 북한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중무역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적어도 중국의 해관통계에서 밝히고 있는 통계 수치로는 그렇다. 2016년 58.26억(수입: 31.92억, 수출: 26.34억)달러에서 2018년도에는 24.15억(수입: 22.20억, 수출: 1.95억)달러로 감소했다. 그나마 2019년도에는 수입이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해 25.89억달러를, 수출은 2.15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치상으로 보는 북한의 대중수출은 거의 아사 직전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한 국가의 무역액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빈약한 실적이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북중무역은 더욱 더 심각해졌다. 수입 4.91억달러, 수출 4,800만달러가 고작이다. 수입은 2016년 대비 15.4% 수준이고, 수출은 1.8% 수준이다. 이는 보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북한 당국이 코로나19의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을 봉쇄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대중 무역적자는 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지원 없이는 무역 자체가 얼마나 존속될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II. 코로나19는 북중무역 구조도 변화시켜

코로나19 이후 북중무역은 과거 대북제재와는 다른 유형에 처해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 외에도 자체적인 봉쇄로 경제에 대한 악영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코로나19는 북중무역액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북중간 무역 형태도 바꾸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통적으로 임가공 원재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던 북한의 대중수입 구조가 식료품 원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2016년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광물 수출을 통한 외화 수입이 어렵게 되자 플라스틱 건자재, 임가공용 섬유 원부자재, 시계부품 등의 원자재를 수입한 후 위탁가공으로 다시 중국에 수출하였다. 그러나 이들 품목의 수입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 비중이 대폭 축소되거나 단절되었다. 반면, 필수재인 식료품과 그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 의료용품의 수입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입도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문제로 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국으로 내보내는 수출은 왜 감소할까? 이는 북한의 수출에서 중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들여와 가공한 후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비중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 원자재 수입이 불필요한 페로실리콘, 텅스텐 등의 2020년도 대중수출 비중은 증가했다.

III. 무역 봉쇄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어렵다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하다. 가뜰이나 대북제재로 위축된 북중 무역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급격히 감소해 북한이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가 관심사이다. 물론 이로 인해 체제가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봉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북한경제에 치명적이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시설 폐기 대가로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북한경제에 대외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2019년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다. 아무리 주체경제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자급자족은 불가능한바, 언젠가는 지금까지 끌어있던 상처가 터질 것이다. 이제 그 시간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경제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면

북중무역 통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딘가 밀무역이 이루어지든가, 통계로 신고되지 않은 무역이 존재할 것이다.

흥미로운 사안은 올 초에 주중 북한대사로 리용남 내각 대외경제담당 부총리를 임명한 것이다. 주중 대사에 대외경제 전문가인 부총리급을 임명한 것은 그만큼 북중무역과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리용남 대사가 현재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방역을 피해 북한 당국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지속가능하게 조달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북한 내 환율이나 쌀, 밀가루, 옥수수 등 곡물 가격 등은 안정적이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곡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전시에비식량을 시장에 공급했다는 소식이 있다. 이로 인해 곡물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얘기가. 환율의 경우는 무역급감으로 외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서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무역에 의존하는 품목의 경우 품귀현상으로 높은 가격대가 유지되고 있는 품목도 있다. 대표적 품목이 조미료이다. 설탕과 식용유 역시 수입은 유지되고 있어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나 조미료의 경우는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IV. 북중무역의 구조를 세밀히 조사하면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효과를 살펴보면, 수출입 제재 품목의 북중무역은 대부분 제로에 가깝다. 통계적으로는 제재 품목에 대한 수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와 같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북한경제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아래 표는 북한의 대중수입 품목을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방식으로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로 분류한 것이다. 이 표에서 자본재는 제재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중간재와 소비재의 수입규모는 제재 이전인 2015년과 같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북제재가 효과를 내기 시작한 2017년도 이후 자본재에 대한 수입은 급격히 감소했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더욱더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중간재나 소비재의

감소는 보이지 않고, 2020년에 들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적어도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는 중간재와 소비재는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이로 인해 대북제재의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을 수도 있다. 북한 당국이 그동안 국산화 운동을 추진해 왔기에, 생산을 위한 중간재만 조달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다. 물론 자본재에 대한 수입이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중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수출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큰 무역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고, 외환 부족으로 인해 수입 능력이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북한의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되느냐와 중국의 지원 여부가 관건이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체 봉쇄로 중간재와 소비재 수입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해 중간재와 소비재 수입마저도 조달이 어려워져 북한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표 1〉 BEC 상품 분류에 따른 북한의 대중수입 동향

(단위: 천달러)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자본재	561,381	502,382	27,322	24,431	5,442
중간재	1,556,501	1,783,056	1,320,691	1,553,305	284,000
소비재	828,001	1,046,207	869,610	1,011,131	201,000
합계	2,945,883	3,331,644	2,217,623	2,588,867	491,000

자료: 중국해관 통계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V. 북중무역 재개, 언제나 가능할까?

현재까지의 북중 접경지역 동향을 볼 때 당분간 무역 재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등 변종 출현으로 중국 내 방역 역시 강화되고 있고, 북한 역시 더욱더 국경 봉쇄를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북중무역에 종사하는 대북 무역업자들 또한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역시 향후 북중무역의 신속한 재개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어쨌든 향후 팬데믹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한 이러한 봉쇄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사안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입 통로를 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에는 질소비료 등 계절적으로 필요한 품목과 연료 등을 수입한 바 있다. 향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이 계속된다면 북중무역이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무역 정상화를 위해 코로나19 방역 시설과 재료 그리고 백신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완벽한 방역이 가능해야 필요한 물자를 수입할 수 있고, 지역 간 물자 교류도 원활해져 국내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언제까지 북한이 남한이나 국제사회의 방역 관련 지원을 거부할지가 관건이고, 북한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제한적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북중간 방역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한다는 소식도 있었으나 이후 중단된 듯하다. 북중 방역 협력을 통해 북한 내 세관 방역시설이 새롭게 구축된다면 일부 교역도 정상화될 소지는 있어 보인다. 미중분쟁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더 중요해졌고, 백신 외교를 펼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수용 여부는 완전히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만 달려있다.